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 창조

발행일/2008년 9월 8일 (월)

발행인/신동수 편집/최선향

주 소/(701-825)대구 동구 신천3동 145-12

전 화/0502-365-0001, 053-743-6058

홈페이지/<http://creation21.or.kr>

## I 이달의 소식

### 1. 모임안내

1쪽

##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16) 진화론의 악영향들 - 이재만           | 2쪽  |
| 2. Articles (6) 목성: 창조주에 대한 증거 - 이종현 역   | 4쪽  |
| 3.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24) 성령의 술 - 김경태        | 8쪽  |
| 4. 참 아름다워라! (41) 창세기 대홍수와 인디언 석판 - 창조과학회 | 11쪽 |

##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도바울의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엡1:4),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엡 2:10),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부회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창조과학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주님의 우주적 교회를 세움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두가 더욱 하나님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부지부장 성영관 올림 -

## 1. 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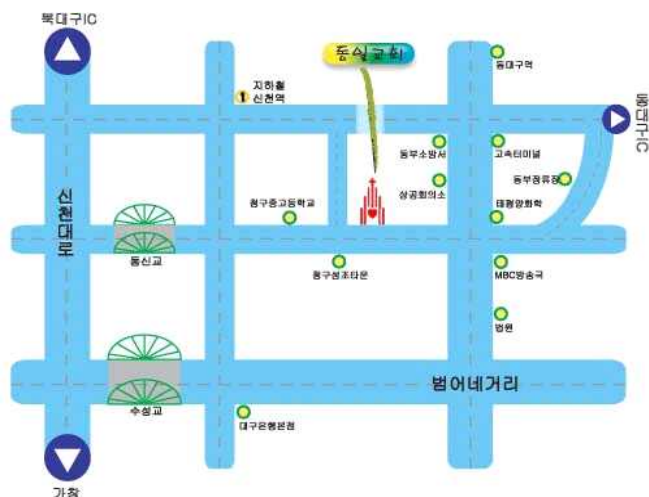
일시: 2008년 9월 18일(목)

장소: 동일교회 복음센터 306호

☎ (053) 743-6058

내용: The Book of Genesis

(by Chuck Missler)



## 진화론의 악영향들

### (The Terrible Impact of Evolutionism)

1930년 이전까지 미국의 대부분 공립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불기 시작한 진화론의 바람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결국 1960년대 이후 진화론이 미국 교과서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이래로 미국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과 이웃을 동물 중의 하나로 여기게 되었고 생존경쟁이라는 삶의 형태가 정당화되었다. 이 변화는 빠르게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다. 다음의 대표적인 예들은 진화론이 들어온 이전과 이후를 잘 보여준다.

#### 1) 가정의 파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창 2:24)**가 점점 발전된 진화론의 산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진화론이 들어온 이래로 이혼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70년도에 들어서면서 거의 50%로 뛰어 올랐다. 최근에는 아예 결혼자체가 줄어들고 동거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림. [www.heritage.org](http://www.heritage.org)). 더 나아가 이혼과 동거의 증가는 결손자녀의 생산으로 이어져, 최근 결손자녀는 60%에 육박하게 되었다 (Federal Reserve Board, 1995).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y will become one flesh.*

- 창세기 2:24, 표준새번역

#### 2) 성적타락

진화론적 교육은 바로 청소년의 성적타락으로 이어졌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소위 성 혁명이라는 시기를 맞이하며 청소년 성관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1년 Focus on Family는 미국 고등학생 중에 46%가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가졌으며, 14%가 네 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발표했다.

### 3) 동성애

진화론을 먼저 받아들인 유럽에서 일기 시작한 동성결혼의 제도화 물결은 최근 미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하는 논쟁거리가 되었다. 동성애 리더들의 글들을 보면 그들의 동성관계의 당위성을 동물에서 찾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01년 Barna Group은 미국 성인 중 45%가 동성애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Do not lie with a man as one lies with a woman; that is detestable)’**(레 18:22). 하나님께서는 동성행위를 엄격히 죄라고 명하셨다.

### 4) 인공낙태

인공낙태가 거의 없던 미국이 진화론적 교육의 확산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자궁 안에서 태아는 다른 동물들의 모양과 같다는 거짓 논문인 헤켈(Hackel)의 **‘배 반복설’**이 일반인들에게 사실(!)로 전해지면서 뱃속에서의 태아는 동물과 다름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미국에서 최근 30년간 매년 백만 이상의 인공낙태가 자행되고 있다.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 하셨나이다’**(시편 139:13). 성경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간임을 말한다.

### 5) 마약과 포르노

마약의 실태는 해결하기 어려운 악화일로에 있다. 미시간 대학의 Monitoring the Future Story는 2002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50%가량이 마약을 한번 이상 시도해 보았다고 발표했다. 하나님 형상을 담은 육체의 귀중함이 상실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인줄 알지 못하느냐?(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members of Christ himself?)’**(고전 6:15상)

인간을 동물 중의 하나로 전락시킨 진화론의 위세는 대단했다. 인간의 모든 판단기준을 상실시켰으며, 더 나아가 그 기준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했다. 성경에 근거했던 미국의 기본적 도덕 기준이 사라지는 위의 예들은 진화론의 여파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보여준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Sign)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신 11:18). 진화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려 우리가 보아야 할 싸인(sign)을 흐리게 하였다.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될 것이 쓰여 있는 싸인판을 상실하게 하였다. 진화론으로 흐려진 싸인판을 창조사실의 확신으로 닦아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될 때이다.

출처: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2273&param=type=C|authorname=이재만> **참조**

## 목성 - 행성의 왕, 그리고 우리 창조주에 대한 증거 (Jupiter: King of the planets and testament to our Cre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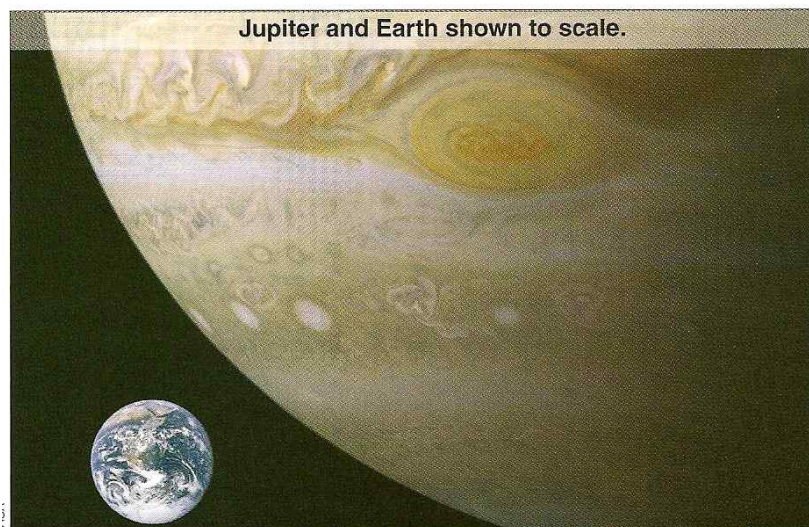
목성은 우리의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다. 이 거대한 물체는 지구를 작아 보이게 한다. - 실제로, 지구 크기의 물체 1,300여 개가 목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질량은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의 2.5배이다.

이 아름다운 행성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목성은 다른 천체와 마찬가지로 창조주간의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한다(창세기 1:14-19).

그러나 진화론 천문학자들은 성경의 설명을 부정한다. 그들은 목성이 약 46억 년 전에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불행하게도, 목성은 우리 태양계의 창조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 거대한 가스(A gas giant)

대부분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와는 달리, 목성은 대부분이 가스이다. 내부 깊숙이에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작은 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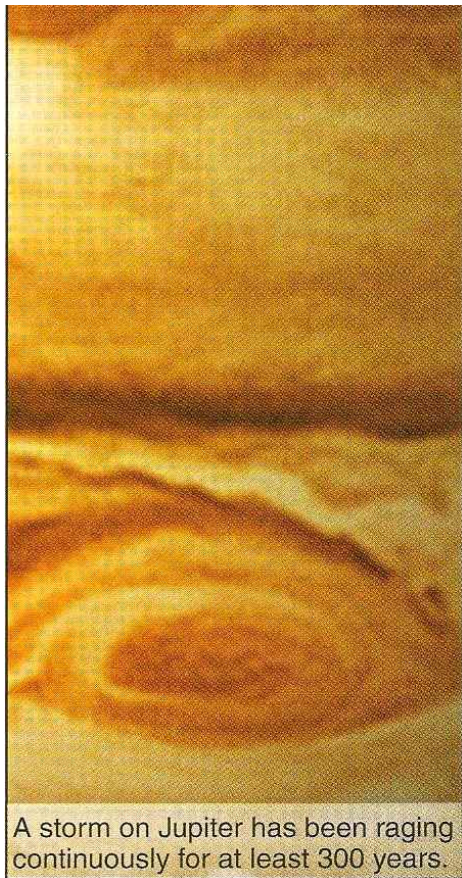


목성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다섯 배 거리에 있다.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밤하늘에서 목성은 흰색의 밝은 별로 보인다. 그러나 그 큼직한 크기 덕분에, 보통의 망원경을 가지고도 그것이 별(항성)이 아니라 행성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 그것은 원반처럼 보인데, 항성은 빛의 점처럼 보인다.

가장 잘 알려진 목성의 특징은 아마도 커다란 붉은 점(Great Red Spot)일 것이다. 이것은 거대하고 격렬한 폭풍 체계인데 그 크기는 지구보다도 더 크다! 이 폭풍은 최소한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그것은 그 행성의 창조 이래로 그 자리에 있었다.

### 목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How can Jupiter exist?)

목성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물체 그 이상의 것이다. 목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우주가 진화론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도전을 준다.



우리의 태양계에 대한 진화론의 표준적인 설명은 소용돌이치는 가스와 먼지의 구름으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약 46억 년 전에, 이 구름이 원반 모양으로 붕괴되었다. 먼지가 알갱이로 응축되었고, 이른바 그 알갱이는 서로 고착되어서 작은 암석이 되었고, 그 작은 암석이 서로 고착되어서 더 큰 암석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주요한 문제는, 빠르게 움직이는 암석은 서로 고착되기보다는 반발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But a major problem for this view is that fast moving rocks are more likely to bounce off each other rather than stick).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금성이나 지구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은 이들 커다란 암석들이 서로 모이면서 형성되었다.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거대한 가스도 처음에는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태양 궤도의 내부에 있는 행성들과는 대조적으로, 막 생겨나는 거대한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아주 멀어서 얼음이 응축된다. 따라서, 가외의 질량이 축적될 수 있었다 - 오늘날 지구 전체에 들어있는 물질의 10배 이상. 이 축적된 물질이 얼음의 도움으로 중력이 커져서, 그것이 가스를 끌어당기므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가스 행성을 이룬 것이다. 암석의 큰 덩어리가 모인 것이 가스 행성의 핵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개념을 ‘핵 부착(core accretion)’ 모델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텔레비전, 책과 잡지, 과학 비디오 등등에서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모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 잘못이 입증된 모델(A falsified model)

핵 부착(core accretion) 모델은 최소한 네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 1.** 이 모델이 옳다면 목성의 화학 구성물을 결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으로 돌아가, 갈릴레오 우주선이 목성의 대기에 탐사선을 투하했다. 진화론자들은 목성의 대기가 많은 양의 특정 가스(아르곤, 크세논, 및 크립톤)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진화론적 모델은 그렇게 높은 농도에서는 이러한 원소들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 진화론 천문학자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목성은 행성 중 가장 큰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 이제 당황스런 사실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거의 모른다.”

**문제 2.** 이 모델에 의하면 목성이 커다란 암석 핵을 가져야 한다. - 전체 지구의 10 내지 30배의 질량. 그러나 갈릴레오 우주선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목성의 핵은 이만큼의 크기일 수 없고, 그 근처에도 못 간다. 기껏해야 지구 여섯 개 정도의 무게이다. 또한 암석 핵이 전혀 없을지도 모른다.

**문제 3.** 이 모델에 의하면 목성을 형성하기 위해 암석과 가스가 축적되는 데에 최소한 천만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몇몇 과학자들은 그보다 더 긴 시간, 즉 최소한 수억 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또한, 우리 태양계 주위로 먼지와 가스의 원반이 그렇게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러한 원반이 5백만 년 이내에 방산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이는 목성이 형성될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제 4.** 가스/먼지의 원반이 충분히 오래 존속했다라도, 우리는 여전히 목성이 그것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최근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핵 부착 모델의 황당한 문제가 드러났다. 원반 내에서 거대한 가스가 형성될 때, 그 가스들은 원반 내에 남아있는 먼지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했을 것이다. 이들 상호작용이, 형성되고 있는 행성을 안쪽으로 태양을 향하여 끌어당길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목성과 토성은 안쪽으로 소용돌이 쳐서 태양에 광 하고 부딪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화론적 용어로 말해서 ‘신속히’ 일어났을 것이다: 그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한지 30만년 만에.

진화론에 의하면 명백히, 목성은 결코 그곳에 있을 수 없다. 진화론자들이 다음과 같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

“목성을 세우는 것이 오랫동안 이론가들의 문제가 되어 왔다.” 혹은,

“목성이 관측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존재가 예측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성은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 놀라운 행성이다.

### 진리를 거절하면 거짓말을 수용해야만 한다.

진화론자들은 이미 창조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거절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최선의’ 대안인 진화론을 수용해야만 한다. 그들의 모델이 여러 가지의 증거에 의해 부정되었는데도, 그것은 사실‘이어야만’한다.

자꾸 자꾸 계속하여, 진화론적 모델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최근에 한 진화론자가 이렇게 한탄했다. “... 행성의 형성에 관한 이론가들의 대부분 모든 예측들은 잘못된 것이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불평했다. “지난 수년간 우리가 배운 것은 표준 모델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 반대되는 증거가 압도적인데도, 진화론자들은 여전히 이 모델을 붙잡고 있다. 그들은 목성이 그 창조주에 관하여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 놀라운 행성 안에서 그를 만드신 창조주의 숨씨를 볼 수 없는 붕괴된 이론에 그렇게도 헌신하고 있다니 불쌍한 진화론자들이여!

진정으로, 목성의 크기, 아름다움, 및 장관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성경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숨씨이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 창세기 1:14-19) 별과 행성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만드셨다!

### 창조

### 목성에 관한 사실(Jupiter facts)

태양으로부터의 평균 거리	778.0 백만km 혹은 483.4 백만mile (지구까지 거리의 5.20배)
궤도 편심	0.049 (지구 = 0.017)
지름	적도 142,800km (지구의 11.2배): 극 133,400km
질량	$1.8986 \times 10^{27}$ kg (지구의 317.8배, 태양의 1/1,047배)
부피	$1.43128 \times 10^{15}$ km <sup>3</sup> (지구의 1321.33배, 태양의 1/990배)
평균 밀도	1.33g/cm <sup>3</sup> (지구의 24%, 태양의 94%)
표면 중력	24.79N/kg (지구의 2.530배)
탈출 속도	59.5km/s (지구의 5.32배)
항성 궤도 주기(태양 주위로, 년)	11.86 지구년
궤도 경사	1도17분 (정의에 의해 지구 = 0)
회전 주기(일)	9시간 55.5분 (지구의 41.5%)
축 기울기	3도4분 (지구는 23도27분)
대기 성분	~90%H <sub>2</sub> , ~10%He (지구는 78% N <sub>2</sub> , 21% O <sub>2</sub> , 0.9% Ar)
적도에서 자기장 강도	4.3가우스 (지구 표면 장의 13.8배)
달의 수	확인 된 것 63개



## 성령의 술

대학에서는 봄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내기들이 입학술을 하고 기존의 학생들은 한 학년씩 진급을 하면서 각 학과별로 학생들이 1년 동안 봉사하고 이끌어 갈 새로운 대표들을 구성한다. 그리고 발대식을 가지면서 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금까지 학과 발대식은 상을 차려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술판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크리스천 교수로서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할 수 없으니 참석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발대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된 학과 대표들은 찾아 와서 올해 발대식은 고사를 지내지 않으니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그래서 참석하였는데 돼지 머리는 보이지 않고, 대신 떡으로 만든 케익과 다과를 준비해서 함께 먹으며 학생들과 교수들이 어울려 담소를 하도록 해서 몹시 흐뭇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느 모임이든지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다.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에도 술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같이 술에 취해 떠들고 노래함으로 동질성을 느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한 그 모임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억지로 마셔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을 권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은근히 리더십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런 자리에서 부하 직원으로서 상사가 권하는 술을 사양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지 모르는 모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싫어도 사양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자꾸 마시다 보면 어느새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고 본인이 상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비슷한 형태의 회식문화를 자연스럽게 답습하게 된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은 물과 지질에 쉽게 녹기 때문에 위장에 잘 흡수가 된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위장에 있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하여 흡수된 알코올의 일부분을 분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혈액을 따라 간으로 가서 간에 존재하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작용과 소포체에 존재하는 산화효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알코올이 아세트 알데하이드로 바뀐다.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알코올이 대사될 때 NADH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 NADH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즉 ATP를 생산하거나, 세포 내 생화학 합성에 사용되는 중요한 생리물질이다.



간에서는 지방산을 대사하여 NADH를 주로 얻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분해될 때 생성되므로 굳이 지방산을 분해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NADH는 지방산의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간에서 지방이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지방간이 되는 것이다.

지방간이 점점 진행되면 간경화로 발전될 수 있고 오랜 기간 간경화가 지속되면 간암으로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알코올의 대사로 인해 생기는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 다시 분해되어 초산으로 된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의 활성이 감소되어 독성이 큰 아세트 알데하이드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세포 안에 있는 다양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DNA가 손상될 때 복구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간세포에서 글루타티온을 감소시켜 활성산소의 생성이 많아짐으로 세포 손상이 일어나고 지방의 과산화가 심해지게 된다. 보통 사람은 체중 1kg당 1시간에 100~200mg의 알코올을 분해할 수가 있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체중 60kg의 사람이면 6~12g의 알코올을 1시간 동안에 처리할 수가 있다. 하루에 간이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80g 정도인데 매일 50~500g의 알코올을 섭취한 사람의 50%가 5년 내에 간경화가 된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이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태반을 거쳐 태아에게 미치게 되고 태아는 알코올 분해효소가 없어서 알코올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그래서 뇌의 발육이 부진하여 뇌성마비나 신경정신 질환을 가질 수 있다.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이 술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로마서 13장 13-14절에 보면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Let us behave decently, as in the daytime, not in orgies and drunkenness, not in sexual immorality and debauchery, not in dissension and jealousy. Rather,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and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고 했다. 이 말씀을 보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같은 것들은 밤의 행동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므로 밝은 대낮에 거할 때처럼 단정히 행하라고 하신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잘 볼 수 없는 것도 술 취하는 것이 밤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품위 있고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함이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노아도 대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해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다가 아들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Wine is a mocker and beer a brawler; whoever is led astray by them is not wise.)”고 했다.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난잡하게 만드는데 결국 술 취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못박고 있다. 물론 술 자체가 죄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베푸셨다. 이를 볼 때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악한 것으로 정죄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하며 포도주를 마셨다. 따라서 당시의 식사 습관에는 포도주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술 자체를 정죄하기 보다는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되는 것을 정죄하고 술에 인 박혀서 술의 노예가 된 삶을 거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술 문화는 가정의 울타리 밖에서 대부분 음란한 분위기 가운데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술자리에서 경건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것도 크리스천으로서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술자리에서 술을 입에 댄다면 아직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임하다가 죄 가운데 쉽게 빠질 우려가 있고 이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는 말씀처럼 우리는 알코올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에브라임 족속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으나 브닌나는 여러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한나를 업신여기며 멸시하자,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한나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이때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의 슬픔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여 술을 끊으라고 말했다. 한나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에 취했던 것이다. 우리도 술에 취해 세상을 비틀거리며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온전히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슬로써 잠시 잊어 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응답 받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일**이다. 이제부터 성령에 취해서 능력 있게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출처 :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중에서 **참조**

## 창세기 대홍수와 인디언 석판

지난 호에 살펴본 길가메쉬 서사시에 이어 오늘은 인디언들이 남겨놓은 대홍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프레이저(1854~1941)는 북·중·남아메리카의 130개 인디오 종족 중 대홍수를 주제로 한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종족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대 멕시코의 티마르포포카 그림문서에는 ‘하늘이 땅에 다가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산도 물 속으로 숨었다. 바위가 땅위에 모든 것을 뒤덮고, 테트존트리(구멍이 많이 난 용암)가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끓어오르고 붉은 산이 춤추며 위로 솟구쳐 올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에 사는 인디오인 키체족의 포플부흐 라는 고서에는 ‘대홍수가 일어났다.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검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지붕으로 기어 올라갔지만 집이 무너져 땅으로 떨어졌다. 또 그들은 나무에 매달렸지만 나무는 그들을 흔들어 떨어뜨린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동굴 속에 피난처를 찾았다. 그러나 동굴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이리하여 인류는 멸망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강의 인디오 전설에는 ‘어느 날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났다. 만물이 암흑 속에 잠긴 뒤에 큰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만물을 휩쓸어 버렸고, 온 세계가 물에 잠겨 버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디언들도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 내용과 비슷한 58개의 대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던 미시간 지방 일대에서는 오래된 석판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896년 9월 3일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발견된 석판은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는 창세기 6:8절 말씀(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처럼 일그러진 태양아래 한 노인은 경배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흥청거리며 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두 번째 부분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라는 창세기 6:17절 말씀처럼 큰비가 내리고 있으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7:12절 말씀처럼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를 보여주듯이 물위에 떠 있는 큰 배가 있고 40주야를 나타내는 네모진 40칸이 좌우에 있으며, 창세기 8:7절(까마귀를 내어 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처럼 나뭇잎을 물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석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창세기 8:18-19절(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처럼 큰 배에서 동물들이 쌍을 지어 내려오고, 네 사람의 남자들이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 남자는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 한 남자만 좀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노아와 그 세 아들을 나타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첫 번째 부분과는 달리 태양으로 추정되는 것의 모습이 찌그러져 있지 않고 둥근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궁창 위의 물로 인한 빛의 산란으로 태양이 일그러져 보이다가, 대홍수 사건 후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짐으로써 둥근 태양이 보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석판은 노아의 대홍수를 매우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창세기 9:13절(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전지구적인 대홍수(히브리어: 맛뵤)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창조퀴즈>

미국 미시간 주에서 발견된 많은 인디언 석판들 중의 하나를 살펴봤는데요, 특히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석판에서 태양으로 추정되는 것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http://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ssoya89@hanmail.net)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